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8. 1 통권 제37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1
1998
제37호

편집자의 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 모색을 위하여2

초 점
새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추진 방향·곽태환3

특 집
김영삼 정부 5 년의 대북 정책 평가
정책의 혼란과 관료 정치 현상·김기정8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국내 정치 논리·이종석18
국제공조체제의 균열과 대통령의 리더십·박두식25

특별기고
북한의 장래에 대한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분석
·김용호·서동만·이 근32

논 단
한반도 분단과 한국 경제 구조의 왜곡·홍성국60
4축회담의 과제와 전망·강정구72

통일다리
북한의 산유국 꿈, 가능할 것인가·권경복87

북한경제
북한의 경제관리체제(I) - 계획화체제·황동언93

해외기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고찰·Marcus Noland103

통 권 제37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8년 1월 13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웅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정관 홍순직
오상교 이원호
류재현 박용주
편집주간 이태섭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37-4005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655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 모색을 위하여

1997년은 향후 수년간의 남북 관계 구도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북한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하였으며 남한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등장하였다. 또 4총회담 분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개최되고 경수로 공사도 착공식을 가졌다. 남북한 지도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는 모처럼의 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남북한 모두 경제 위기에 처해있고 남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를 모색할 필요를 느끼고 있어, 남북 관계의 개선 가능성과 기대는 상당한 근거와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드시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남북 관계의 극적인 개선과 화해를 기대하기에는 남북한의 내부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수령결사옹위'를 고취하면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내부적 동원과 통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식량난 등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전망은 어둡고 대남 정책 역시 큰 변화가 없다.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남북의 평화와 안정, 교류의 점진적 확대를 중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내미 협력과 강력한 안보 태세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북한과의 대화에는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수로 건설과 4총회담 역시 계속 추진할 뜻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남북 관계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남한 경제가 IMF관리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남한의 대북 지원 여력이 축소되어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 한 남북 관계 개선 시도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남한의 지원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며 對미·일 접근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남한 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고 세련된 대북 관계의 철학과 일관성있는 대북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북한 모두 정치적 필요에 의한 일시적 화해보다는 상호 공존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부의 체제 정비와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통하여 남북 관계 구도를 한 차원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한 모두 분발이 필요한 역사적 시점에 처해있으며 우리 모두의 경회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계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1998년 1월

편집자